

제15회 가톨릭 에코포럼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늦은 7시-9시

장 소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주 최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주 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정의평화위원회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일정표

사 회 : 이재돈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학술소위원회 위원장)

- | | | |
|-------------|------|---|
| 19:00-19:05 | 영상기도 |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
| 19:05-19:10 | 인사말 | 유흥식 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 19:10-19:40 | 발제 1 | 사회교리적 관점에서 본 회칙 『찬미받으소서』
- 유경춘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
| 19:40-20:10 | 발제 2 |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통합생태론과 인드라마
- 조현철 신부(예수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 20:10-20:20 | 휴 식 | |
| 20:20-21:00 | 질의응답 | |
-

목 차

인사말 / 05

유홍식 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발제 1. 사회교리적 관점에서 본 회칙 『찬미받으소서』 / 07

유경춘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발제 2.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통합생태론과 인드라마 / 14

조현철 신부(예수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참고 자료. 교황청 회칙해설 / 21

회칙 질문과 대답 / 31

교황 성하 서한 번역문(2015. 8. 6) / 36

회칙 교황 친필 내용 / 39

“우리 모두는 하느님 선물인 자연의 보호자들입니다.”

유홍식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를 지난 6월 18일 반포하셨습니다. 이 회칙은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환경’ 과 ‘생태’ 를 주된 내용으로 삼았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 야기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생태 위기의 시대에 반포하신 회칙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큼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가톨릭교회의 공적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놀라운 회칙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기에 이는 새로운 삶을 향한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찬미받으소서』 160 항)라고 물으십니다. 또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는 우리와 삶을 나누는 ‘누이’ 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이요, 어머니인 지구가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지구 어머니와 형제자매인 피조물들을 위해 교황님께서 우리 모두의 ‘변화’ 를 말씀하십니다. 생태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인 ‘생태적 회심(回心)’ 입니다.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된 세상 안에서 하느님과 자연을 향한 의무와 책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이며, 인류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는 일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땅과 자연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화해하는 보호자로 거듭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는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친교가, 우리가 이웃 특히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맺는 친교,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과 맺는 친교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사회 회칙이며 생태 회칙입니다. 오늘 제15회 가톨릭에코포럼은 이러한 교황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사회교리적 가르침을 말씀해주실 유경춘 주교님과, '통합 생태론'에 대해 말씀 해주실 조현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가톨릭에코포럼의 실무를 맡아주신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조해봉 위원장 신부님과 학술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돈 신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5회 가톨릭에코포럼이 우리 신앙인들은 생태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으로 열매 맺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황님께서 모범으로 제시하고 계신 프란치스코 성인의 단순하고 청빈한 삶을 우리도 본받읍시다. 성인께서는 자연 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인 평화가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찬미받으소서』 10항)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 『찬미받으소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선물인 자연의 보호자들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9월 15일(화)

유홍식 라자로 주교

사회교리적 관점에서 본 회칙 <찬미받으소서>

유경춘 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 회칙 **찬미받으소서**(LS)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교도권 문헌이면서, 회칙으로서는 두 번째이고 동시에 그의 첫 번째 사회회칙이다.
- 문서의 수신인(LS 3+ 14) : 프란치스코 교황의 앞선 문헌들은 ‘주교와 신부, 부제, 수도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회칙(신앙의 빛)과 교황권고(복음의 기쁨)이었으나, LS는 ‘지상의 평화’(1963) 이래로 일상적이 되바, ‘**선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문서.
- 회칙의 구성 : 서론과 6개章 246개項, 2개의 기도문으로 구성
- 회칙의 대 주제 :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모든 인간의 책임
- 회칙의 제목 :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태양의 찬가’에서 ‘나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1. 방법론(LS 15)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로 특징적인 ‘시대의 징표 신학’ (사목현장 4)에 따른 3단계 전개방식을 따름 : 보기 - 판단하기 - 행동하기

현실직시 : 제1장

공동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자. 왜?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위해서!(LS 19).

- 각종 오염(하늘/땅/물): 생물학적으로 분해 어려운 맹독성 쓰레기 더미로 가득찬 지구. 재생불가능한 자원사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절제, 재활용 등으로 “버리는 문화”를 버려야!
- 온난화: 화석연료의 엄청난 사용과 산림파괴로 가속화 → 생활양식,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의 변화,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확대로 화석연료사용 대체해야.
- 물(수질오염과 물부족): 식수확보는 보편적 인권문제. 세계와 화학제품들이 계속 강,

호수,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 생물다양성 감소: 숲의 파괴와 바다의 오염으로 해마다 수천종의 동식물이 멸종.
- 삶의 질 저하: 생태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도시의 확대와 디지털 생활환경
- 세계적 불평등: 인간환경(가난한 이의 고통)과 자연환경(지구의 고통)은 동전의 앞뒷면.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생태적 빗'. 다국적 기업을 통한 오염수출. '차등적 책임'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 성과는 미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소비습관, 피상적 생태론, 회피적 태도 등 고수. 기술중심주의 or 생태중심주의? 양극단의 중용 바람직!

판단 : 제2-3-4장

- 신학적 원칙: 대신, 대인, 대자연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자연을 돌보고 가꿀 의무를 창조주로부터 받음. 모든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됨. 조화로운 관계의 단절이 곧 죄. 예수님은 피조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신 분. 자연은 그분의 현존으로 충만. 인간사회의 문제해결은 자연문제의 해결과 상호 조건적으로 연결됨. 지구는 인류 공동의 유산. 재화는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함(사유재산의 사회적 성격).
- 위기의 근원: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여 무한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세계정치와 경제를 장악. 그릇된 인간중심주의가 낳은 그릇된 생활양식과 상대주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시각, 사고방식, 생활양식, 영성이 필요.
- 통합생태론: 세상이 하나의 관계망으로 연결. 사회위기와 환경위기는 하나의 복합적 위기의 양면. 위기해결위해 **공동선**의 관점에서 **미래세대**까지도 포함한 통합적 시각이 필요 → **통합생태론**. 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등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 필요.

행동 : 제5-6장

- 대화가 필요하다: ①국제정치에서 환경협약들을 실행하고 위반 시 국제적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세계적 합의가 필요. 참된 세계적 정치 권위가 절실히 요구됨. 모든 나라가 공동의 그러나 차등적 책임을 저야 함. ②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획일적 해결책은 없으므로 지역에 따른 고유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정부기구와 중간집단

들,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정책 결정에 솔직하고 열린 토론 필요. ③이윤극대화에 붙잡힌 경제가 스스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정치가 결여된 경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학제적 대화를 포함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을 하는 정치가 필요. 정치와 경제가 공동선을 위해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필요 ④과학과 종교의 대화를 통해, 과학 기술적 한계를 종교적 지혜와 영감이 보완해 줄 것.

- 생태교육과 영성: 소비지향적 생활양식의 탈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환경 교육이 중요. 그 교육을 통해 얻은 생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 함. 사소한 실천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 것. 교육은 학교, 교회, 수도회나 사회단체만이 아니라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태교육의 못자리. 생태적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함.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 안에서 가진 것이 적어도 기쁨과 평화누리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 주일은 대신, 대인, 대자연 관계를 치유하는 날이고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이다.

2. 패러다임의 확대발전

레오13세 “새로운 사태” (RN 1891) **노동문제** Justice 정의의 문제

백주년은 RN을 최초의 사회회칙, 정의/인권/연대성 보조성원리/가난한 이들에 관한 최초의 회칙이라고 평가

- RN반포 40주년: 사십주년(비오11세, 1931)
- RN반포 70주년: 어머니요 스승(요한23세, 1961) 지상의 평화(1963)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최초의 회칙
- RN반포 80주년: 팔십주년(바오로6세, 1971)
- RN반포 90주년: 노동하는 인간(요한 바오로2세, 1981)
- RN반포 100주년: 백주년(요한 바오로2세, 1991)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PP 1967) **발전문제** Peace 평화의 문제

국제적 빈부격차, 발전의 문제 “발전은 평화의 새 이름”, “발전은 곧 평화” (PP 87)
교황직속 ‘정의평화위원회’ 신설(PP 5) 1968.1.1부터 ‘세계평화의 날’ 신설

- PP반포 20주년: 사회적 관심(SS 요한 바오로2세, 1987)
- PP반포 40주년: 진리안의 사랑(CV 베네딕토16세, 2009)

“이 회칙(PP)이 발표된 지 40년이 넘는 지금 저는 위대한 교황 바오로 6세를 기리며 온전한 인간발전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고, 그 길에 새겨진 이정표를 따라, 이 시점에 그 가르침을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 상황에 계속 적용시키는 일은 하느님의 중요한 바오로 2세께서 민족들의 발전 2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하신 회칙 사회적 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사태만을 그렇게 기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더 흐른 지금, 저는 민족들의 발전을 일치로 나아가는 인류의 여정을 밝혀주는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로 여겨야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CV 8).

하지만 SS(29,34)뿐만아니라 CV(48-51)에서도 환경문제는 아주 간단히만 취급됨.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LS 2015)

Integrity of Creation 생태문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들의 전통적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전개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날카롭게 하도록 새로운 역동성을 도입함.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고 사랑의 결실(GS 78)인데, 그동안에는 인간끼리의 정의를 강조했다면 이제 생태정의를 강조하면서 인간끼리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연 사랑으로까지 사랑의 범위를 확대.

- 바오로6세-생태적 재난 경고하면서 긴급한 변화를 촉구(LS 4).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전격적 회개의 필요성 제기
- 요한 바오로 2세-세계적 생태적 회개요청(LS 5). 자연적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도덕적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내적 단일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간 생태계’라는 말을 강조
- 베네딕토16세-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동시 훼손(LS 6). 인간과 자연이 더 이상 경제적 유용성이나 정치적이고 의학적 조작에 이용당하지 않게 될 때야 비로소 인류자멸의 길로부터의 돌아설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심관심사는 ①모든 인간의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염려(생태문제)와 ②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발전문제) : 환경을 위한 투신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투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생태적 불의와 사회적 불의가 별도로 취급될 수 없다 (통합생태론).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가지 기본 관심사를 묶어주는 분(통합생태론의 모범)이다(LS 10).

지구적 발전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처음으로 생태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룬 최초의 사회 회칙이라는 점에서 LS는 가톨릭사회교리에서 중요한 이정표임. 이 시대와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사태’ 가 될 것.

3. 가톨릭사회원리의 귀결: 통합생태론

- 사회교리의 핵심은 인간존중의 실현에 있다. 인간존중이 곧 하느님의 존중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존중과 연관된 모든 것이 교회의 관심사가 되고, 가톨릭사회교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문제가 바로 자연파괴이다. LS가 자연파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사회교리의 확대된 핵심 관심사를 잘 드러낸 셈이다(인간존엄성의 원리).
- 세상이 하나의 관계망으로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생태론의 통찰은 연대성과 공동선, 보조성의 원리와 같은 가톨릭사회원리의 핵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 미래세대까지를 포함하여 창조세계 안에서 모두 하나의 공동운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책임 강조됨. 지역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중시됨.
- 사유재산권/재화의 공통목적·공동사용 원리: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님!(가톨릭사회원리). 지구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인간 맘대로 할 수는 없음. 세상은 창조주의 것(궁극적으로 주인은 하느님이고 인간은 관리자일 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無償性의 원리(the principle of gratuitousness)를 실천하는 것은 창조주의 뜻. 재화의 공통목적성처럼 자연도 모두를 위한 것(통합생태론).
- 가톨릭사회교리의 핵심은 '사랑'이다(진리안의 사랑). 통합생태론이 제시하는 궁극 목표도 '사랑'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 세상 안에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모든 사회원리도 사랑을 위한 도구인 것. 특히나 무상성의 원리는 말할 것도 없음.

4. 열린 사회교리

- 보편교회의 실현으로서의 지역교회 강조(사목현장 이후 교회론): 귀납적, 경험적, 성서적, 학제간 연대 강조. 통상 바티칸 문서를 지역교회가 인용하고 실천하는 수직적 구조가 일반적이었다면, 이번 문서는 교황회칙이 지역교회의 문서를 광범위하게 인용함으로써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상호 보완적 형제관계임을 드러낸 파격.
- 각국 주교회의들을 격려: 생태문제에 대해 각국 주교회의들의 다양한 문서들을 인용함으로써 주교들의 공동교도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정한 셈. 또한 각국 주교회의들이 생태문제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작업을 해왔는지 보여줌.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통해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생태적 치유를 향하

여'(2008)와 '창조질서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2010)를 발간했으나 영문으로 발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남아프리카 주교회의, 환경위기에 관한 사목성명, 1999
- 뉴질랜드 주교회의, '환경 문제에 관한 성명', 2006
- 도미니카 주교회의, 사목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하여', 1987
- 독일주교회의 사회문제위원회, '기후변화, 세계적, 세대간, 생태적 정의의 핵심문제', 2006
- 독일주교회의, '피조물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 환경과 에너지 대책에 관한 독일 주교회의 성명', 1980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주교회의, 제5차 정기총회문헌, 2007
- 멕시코 주교회의 사회사목위원회, '예수 그리스도, 토착민과 농민의 삶과 희망', 2008
- 미국 주교회의, 성명 '세계 기후 변화: 대화와 분별과 공동선의 요청', 2001
- 볼리비아 주교회의, 볼리비아의 환경과 인간 발전에 관한 사목교서 '세상, 삶을 위해 하느님에게서 주신 선물', 2012
- 브라질 주교회의, '교회와 생태적 문제들', 1992
-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사목위원회, '모든 이를 위한 땅', 2005
-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코마우에 주교단, 성탄 담화, 2009
-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가 후원하는 세미나의 선언문 '피조물에 대한 사랑. 생태 위기에 대한 아시아의 응답', 1993
- **일본 주교회의, '생명에 대한 경외. 21세기를 위한 담화', 2000**
- 캐나다 주교회의 사회문제위원회, 사목교서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2003
- 파라과이 주교회의, 사목교서 '파라과이 농민과 땅', 1983
- 포르투갈 주교회의, 사목교서 '공동선을 위한 연대 책임', 2003
- 필리핀 주교회의, 사목교서 '아름다운 우리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988
- 호주 주교회의, '새로운 지구, 환경적 도전', 2002

-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고 해석하는 일은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의무이며 특히 사목자, 신학자들의 의무(GS 44항). 그런 점에서 LS가 지역교회 사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학자들의 의견(샤르댕, 파르디니)을 인용한 것은 고무적이다.

5. 「찬미받으소서」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다시 JPIC : 1990. 3 서울 JPIC 세계대회. LS반포는 IC가 JP를 대치하는 의미가 아니라 JP의 문제를 IC의 문제로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LS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JPIC 의식, 논의, 사목구현을 확산시키기.

- 한마음한몸운동 : JPIC 운동으로서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활동 다시보기.

세상 모든 인류가 온갖 종류의 장벽을 넘어 평화를 이룩하고, 회심과 나눔으로 형제적 일치를

이루도록 이바지하며, 나아가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과도 화합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생활쇄신 실천운동으로 출범

그리스도교(사회교리)의 핵심메시지인 ‘사랑’은 JPIC의 근간. 한 몸 의식의 표현이 사랑이기에, 교회가 한 몸 의식을 실천할 때 이것은 동시에 JPIC의식의 실천이기도 함. 한 몸 의식을 지닐 때 고통 받는 이웃과 자연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김(1코린 12,26). 한 몸 의식은 JPIC실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원동력.

- 환경사목위원회: ‘즐거운 불편 운동’, ‘아나바다 운동’ 과 같은 실천운동 프로그램의 강화
- 환경분과 : 본당 사목평의회 환경분과 조직 활성화
- 하늘·땅·물·벗 : ‘하늘·땅·물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 (하늘·땅·물·벗 모임)
1991.8시작: 신자들의 자발적인 모임 없이는 지속적인 환경운동유지 어려움. 따라서 빈첸시오회(정의), 마리아의 푸른군대(평화), 군중후원회(평화)등과 같은 사도직단체로서 <하늘·땅·물·벗>의 본당 내 조직을 생각할 수 있음. 한 본당에 여러 개의 <하늘·땅·물·벗>조직도 가능할 것. 예를들면 <1구역 하늘·땅·물·벗>, <2구역 하늘·땅·물·벗>.... 그런 모임들이 현행 반모임, 구역모임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회합 때 공동기도, 말씀/생활 나눔도 병행할 수 있고 생태문제에 관한 나눔과 활동 가능.
- 주교회의지침 활용 : ‘창조질서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 (2010)에 수록된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제언” 다시보기

‘찬미받으소서’의 통합생태론과 인드라마

조현철(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교수)

존재, 인식, 실천

(1) 인간 이해의 중요성: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알게 모르게 습득하는 답에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 ‘나’의 이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세계 이해와 인간 이해

내가 누구인지는 언제나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세계 내에서, 관계 내에서만 인식된다.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상 만물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세계 이해와 인간 이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진다.

(3) 세계 이해의 중요성

세상은 존재한다.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한다. 세상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세상 만물, 나와 타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 인식에 따라 세상에서 행동한다. 살아간다. 그래서 중요하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 드러난 프란치스코 교종의 세계관: 인드라마

- (1)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 (2) 우리 공동의 집(our common home)
- (3) 통합 생태론(integral ecology)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16항, 137항): 생태학의 근본법칙

- (1) 생물학적 사례: 광합성 식물과 동물의 관계; 수세식 화장실; 건전지의 일생

(2) 생태학의 파생 법칙: ‘쓰레기’란 없다; 자연이 가장 잘 안다; 공짜 점심은 없다.

(3)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 자연과도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 공동의 집(our common home)(1항)

(1) 긴밀한 관계망의 세상: 집 → 생태적 세계관

(2) 생태적 세계관의 함의: 세상 만물의 근원적 연결성; 고유하고 본질적인 가치

통합생태론(137항)

(1) 생태론/학은 살아 있는 유기체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생태론/학은 이미 통합적임(being integral)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부분도 전체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중시하는 통합생태론은 환경/경제/사회(138-142항), 문화(143-146항), 일상생활(147-155항)의 측면을 포함하며, 공동선(156-158항)과 세대간 정의(159-162항)를 강조한다. 세대간 정의는 당연히 세대내 정의를 요구할 것이다.

자연과학에서 본 세계

(1) 우주물리학, 진화과학: 공동의 기원과 이후의 우주/지구 형성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서 벗어나 생겨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세상 만물은 존재와 생명 차원의 유대로 서로 맺어져 있다.

(2) 인간은 우주와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생겨난 현상이다. 100년도 채 못 사는 내 세포 안에 약 150억년의 우주 역사가 담겨 있다. ‘우주 속의 나’는 경외/존중의 마음을, ‘내 안의 우주’는 돌봄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성서의 창조설화로 본 세계 (「찬미받으소서」 2장)

(1) 세상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보는 것은 세상을 하느님의 선물로 보는 것이다. 세상에는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의 질서가 들어있으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다

(77항).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에 피조물 자체보다 더 깊게 현존하면서, 동시에 피조물의 자립성을 보존해준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의 존재/작용 방식이다(80항). 이에 비해, 세상을 자연으로 보는 것은 세상을 일차적으로 탐구와 이해의 대상,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76항).

(2) 창세기의 첫째 창조설화의 주요 모티프는 ‘하느님의 모상’ 과 ‘인간의 다스림’ 이다 (66-67항).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 인간은 자신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된 후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 근거인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과제를 부여받았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다스림은 하느님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던 세상, 피조물들을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하느님을 생각하면, 인간의 다스림의 성격은 돌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창세기의 둘째 창조설화의 주요 모티프들인 ‘아담’ (흙의 존재, 하느님의 숨의 존재), ‘아담과 에덴동산’ (일구고, 돌보고), ‘하와’ (아담의 협조자)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대해 동일한 관계를 제시해준다. 또한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4) 요컨대, 창조설화에 나타난 창조질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는 존엄과 평등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는 존중과 돌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세상 만물은 창조질서 속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에서 비롯되는 유대로 연결되어 “보편 가족, 친교 공동체” 를 이룬다(89항).

(5) 창세기 3장 선악과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이로써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 하느님과의 관계를 훼손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느님을 피해 숨는다. 자신의 존재 근원인 하느님과의 관계 훼손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훼손하고 만다. 인간은 결국 자신과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면, 나 자신, 다른 이, 하느님, 지구와 각각 맺은 관계도 망쳐버리게 됩니다.” (70항)

안식일 전통

(1) 구약의 안식일 전통은 창조질서의 유지/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71항).

(2) 안식일 규정(신명 5:14-15)

안식일의 배경에 있는 출애굽 사건은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해방임을 알려준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훼손, 파괴하는 노예 신분에서의 해방으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정신이다. 안식을 통해서 주인보다 사회적 약자인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이방인” 들의 최소한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된다. 그리고 안식일의 배려는 인간 이외의 피조물인 “소와 나귀, 집짐승” 에까지 미친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대한 존중과 돌봄을 암시한다.

(3) 안식년 규정(레위 25: 2-7)

땅을 묵힘으로써, 땅도 안식을 취한다. 모두가 묵힌 땅에서 나오는 소출에 권한을 갖는다. 안식년의 소출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연에 대한 존중과 돌봄이 보장된다.

(4) 희년 규정(레위 25,10-13)

안식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희년은 빛의 탕감을 통한 해방,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연의 존중을 보장하고 있다.

(5) 정의, 평화, 창조질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정은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창조질서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훼손된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안식일/안식년/희년 전통에는 「찬미받으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생태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통합되어 있다. 생태문제 고려에 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49항, 93항). 창조질서의 훼손은 올바름의 훼손, 정의의 훼손이다. 창조질서, 곧 정의가 회복되면, 세상은 원래의 조화와 평화를 회복한다.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한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이사 32:17) “평화와 정의, 그리고 피조물 보호는 서로 철저히 연결된 주제입니다. 이를 분리하여 개별 주제로 다루면 결국 환원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92항) 정의는 창조질서의 보전을 뜻하며, 평화는 정의의 열매다(「사목현장」, 78항).

(6) 예수와 희년의 정신

예수 또한 자신의 사명을 희년의 전통에서 선언하고 있다.(루카 4,18-19; 이사 61,1-2) 사회적 약자, 가난한 이들과 억눌린 이들에 대한 예수의 헌신 또한 창조질서의 회복 노력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조질서가 온전히 실현된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일 것이다.

불교 : 인드라망/연기론

(1) 인드라망, 그물! 불교의 세계관을 집약하는 상징어다. 세상 만물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비추고 있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2) 인드라망으로 인식한 세계는 곧 연기론의 세계이다. 세계 내 모든 존재는 그물의 이음새인 그물코에 해당된다. 이 근원적인 유대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타인과 자신의 고통의 뿌리다. 이 관계를 깨닫고 그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생태정의 : 환경정의, 사회/경제정의, 개인정의

(1)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두 가지 별도의 위기, 곧 환경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가 아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사회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이 함께 있는 “복합적 위기” 다(139항).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배제하는 사회가 자연을 친절하게 대할 리가 없다(91항). 사회정의를 무너진 사회가 자연을 제대로 대할 리가 없다(호세 4,1-4).

(2) 핵 발전

핵 발전은 자연과 사회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발전소는 외부 세계와 절대적으로 분리, 차폐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어차피 완벽한 분리와 차폐는 불가능하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부터 시작되는 오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집 전체로 퍼져 나간다. 최대한 분리와 차폐가 요구되는 핵발전소는 태생적으로 폐쇄적 운영이 불가피하며, 투명성과 개방성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핵발전소는 비리와 부실운영의 온상이 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 핵 발전이 요구하는 피폭노동은 결국 사회의 가장 힘없는 이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핵 발전으로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가 파괴된다. 주로 어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의 자립적 삶은 의존적 삶으로 전락한다.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대도시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된다. 핵 발전은 창조질서 훼손의 대표적인 주범이다.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훼손하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 물질을 배출하는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하는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과 이를 뒷받침하는 불의한 정치/사회/경제구조가 놓여 있다.

(3) 설악산 케이블카

최근 남설악의 오색에서 대청봉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다. 가장 엄격한 보호 구역이지만,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평가를 부실, 조악한 채로 사업을 가결했다. 법으로까지 보전을 규정한 지역이지만, 산에 대한 존중과 돌봄의 정신은 경제 활성화라는 돈벌이 앞에서 여지없이 사라져버렸다. 자연 생태계를 심각히 훼손할 결정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사회적 구조와 힘이 존재한다. 그리고 탐욕은 끝을 모른다.

(4) 자연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환경에 대한 논의는 정의 문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49항) 생태적 접근은 가난한 이들의 기본 권리를 고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93항). 우리는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을 함께 들어야 한다(49항). 여기서 우리는 이번 회칙의 성격이 기존의 사회교리의 확장과 심화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방신학을 확장, 심화한 이른바 레오 나르도 보프의 ‘생태해방신학’의 관점이 여기 채택되어 있다.

생태적 회심

(1) 물질적 배타적, 독점적 풍요와 소비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발생한 생태위기는 “적을수록 크다”는 확신을 가져오는 개인의 “깊은 내적 회심”을 요청한다(222, 217항). 바로 생태적 회심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이신 하느님이 그러하듯 자기 비움의 존재다. 인간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를 충족시키는 역설적 존재다. 생태적 회심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는 자신에서 벗어나 타자로 눈과 마음을 돌리는 “관대한 돌봄의 정신” 그리고 단순과 검약과 절제의 생활양식, 나눔과 배려의 삶으로 이어진다(220, 222항).

(2)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회심: 보편 형제애(228항)

프란치스코 성인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형제자매의 친교를 이루며 살았다. 프란치스코의 회심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만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자기 비움과 가난의 삶으로 구체화되었다. 그의 가난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11항). 그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뜻했다. 그렇게 세상은 프란치스코에게 “형제애의 감각”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92항). 형제애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집인 세상에서 남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삶, 단순과 검약과 절제의 삶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그럴 때에, 세상은 프

란치스코가 노래했듯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 같은 우리 모두의 집이 될 것이다(1항).

(3) 끝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적 회심에서 비롯되는 이웃을 향한 나눔과 배려, 돌봄의 정신은 공적 차원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정치적 사랑’ 이어야만 한다. 참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사랑이 필수적이다(231항). 사회적 사랑의 확산은 현재 우리의 사회 현실인 배타적 소유와 지배의 문화를 상호 협력과 돌봄의 문화로 바꾸는 근원적인 변화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해설

이 해설은 회칙을 처음 읽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이 해설이 회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기본 주제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괄에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종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장으로 나누어 논지나 요점과 중요한 구절을 요약하였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회칙의 항 번호를 나타냅니다.

개괄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160항) 이 질문이 더불어 사는 집을 돌보는 데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환경만을 따로 떼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삶의 의미와 사회생활의 근저에 놓인 그 가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활동과 모든 노력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오한 문제와 싸우지 않는다면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0항).

이 회칙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Cantico delle creature)에 나오는 후렴구인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에서 그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더불어 사는 집인 지구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 (1항)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흙의 먼지” (창세 2,7 참조)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2항).

이제 이 지구가 착취와 남용으로 신음하며 세상에 모든 버려진 이와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초대하시며 우리

모두, 곧 개인, 가정, 지역 공동체, 국가, 국제 공동체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말씀하신 “생태적 회개” 를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집을 돌보는” 과업의 아름다움과 책임을 느끼며 “방향 전환” 을 하도록 초대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참되고 깊은 관심과 더불어 환경 보호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지고 자연보호의 필요성” (19항)을 느끼고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확인하십니다. 회칙 전체에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빛줄기가 흘러나옵니다. “인류는 더불어 사는 집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13항). “인간은 아직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58항).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최악의 것을 자행할 수 있지만 또한 자신에게서 벗어나 선한 것을 선택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5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을 인용하시며 가톨릭 신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 안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하고 자연과 창조주에 대한 의무’ 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64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특히 “더불어 사는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눌 것” (3항)을 제안하십니다. 이 대화는 회칙 내용 전체에서 언급되고 제5장에서는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처음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다른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종교들도” 생태계라는 주제에 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성찰을 해왔음” 을 기억하십니다(7항). 확실히 그러한 기여는 “존경하는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 (7항)과 나눈 대화에서 시작되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화는 8항과 9항에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개인과 단체와 협회의 일꾼들에게 여러 차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많은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시민 단체가 모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성찰을 풍요하게 해 주었음” (7항)을 인정하십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온전한 생태계와 인류의 충만한 발전을 위한 종교의 풍요한 기여를” (62항) 모든 사람이 인정하여 줄 것도 바라십니다.

15항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이 회칙의 틀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칙은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발견에 바탕을 둔 현재 상황을 제시합니다(제1장). 그리고 나서 성경과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의 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제2장). 또한 기술 관료제와 인간의 지나친 자기중심주의에 놓인 문제들의 근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제3장). 다음으로 이 회칙은 제4장에서 환경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온전한 생태학” (137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께서는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구축하도록 사회, 경제, 정치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십니다(제5장). 교황님께서서는 그 어떤 계획도 잘 길러진 책임 있는 양심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상기해주시며, 교육, 영성, 교회, 정치, 신학의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십니다(제6장). 교황님께서서는 두 기도로 이 회칙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느님” (246항)을 믿는 모든 신앙인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찬미받으소서.” 라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이 회칙은 이 후렴구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이 회칙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회칙 내용을 관통하여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취약함의 긴밀한 관계
-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 기술에서 나오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힘에 대한 비판
- 경제와 발전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을 찾으라는 요청
-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 생태계의 인간적 의미
- 숨김없는 솔직한 토론의 필요성
-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중대한 책임
- 버리는 문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제안(16항)

제1장 더불어 사는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1장은 환경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발견을 피조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19항). 그래서 이 장은 “현재의 생태 위기의 여러 측면들” (15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염과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과제입니다” (25항). 만약 “기후가 모든 이에게 속하고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라면” (23항), 가장

가난한 이들이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문제의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6항).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가 관련된 이 비극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대응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의 상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5항).

물 문제 : 교황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인 기본 인권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에 맞갖은 생명권” 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30항).

생물다양성의 감소 : “해마다 우리는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3항). 이것들은 그저 착취할 수 있는 “자원” 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에 헌신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소중한 노력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여가 금융과 소비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 우리 지구를 빈곤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며 더욱 제한되고 음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34항).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 국제 관계 윤리의 틀 안에서 이 회칙은 “실제적인 ‘생태적 빛’ ” (51항)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특히 남반구에 대하여 북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대하는 데에 “차등적 책임” (52항)이 있으며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많은 견해차를 인식하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비극에 대한 “미약한 반응” 에 깊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긍정적인 예들이 없지는 않지만(58항), “자기만족과 커다란 부주의” 가 팽배해져 있습니다(59항). 합당한 문화가 결여되어 있고(53항) 생활양식과 생산과 소비를 바꾸려는 의지도 없습니다(59항).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계를 분명히 정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수립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53항).

제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

제1장에서 기술한 문제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며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의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시고 피조물에 대한 “엄청난 책임” (90항)을 설명하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의 긴밀한 관계와 “자연 환경이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 (95항)라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성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 두 활동 방식은 긴밀하고 분리 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3항). 창조 이야기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죄가 창조 질서 전체의 균형을 어떻게 깨뜨렸는지를 성찰하는 데에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관계, 곧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관계는 이 세상과 우리 안에서 깨어졌습니다. 이러한 불화가 죄입니다.” (66항)

이러한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적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 땅에 대한 지배를 위임받은 사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7항). 인간은 세상이라는 정원(창세 2,15 참조)을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67항)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은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의 도착점을 향하여, 곧 하느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3항)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여기게 되어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사라지고 그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구를 신격화하여, 지구를 위하여 그 취약점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90항).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잔인한 행위는 ‘인간 존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92항).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웃에 대한 세심함, 연민, 배려가 없다면 자연과의 깊은 친교의 감각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91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편적 친교에 대한 의식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유대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보편 가정을 이루며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채워주는 숭고한 친교를 이롭니

다.” (89항)

이 장은 그리스도교 계시의 핵심에 관한 글로 마무리됩니다. “지상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과 실재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어 당신의 보편적 주권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십니다.” (100항)

제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이 장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철학과 인문과학의 대화를 통하여 “그 증상과 심층적 원인들을 성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15항)

기술에 대한 성찰로 이 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온갖 기술 지식, 특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재원을 확보한 이들이 인류 전체와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104항). 이것이 바로 기술 관료적 지배의 사고방식으로 자연의 파괴와 인간,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의 착취를 야기합니다.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은 또한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지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09항) 그리하여 “시장 자체가 온전한 인간 발전과 사회 통합을 보장할 수 없다” (109항)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는 지나친 인간중심주의로 얼룩져 있습니다.” (116항) 인간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자기 자신과 그 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고 버리는 방식”의 논리를 낳아 환경과 인간의 모든 낭비를 정당화하고 타인과 자연을 단순한 대상으로 여기며 무수한 지배 형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동 착취, 노인 유기, 타인의 노예화, 인신 매매, 부모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의 낙태, “피의 다이아몬드”와 멸종 위기 동물 가죽의 매매, 시장의 자율 능력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야기합니다. 이는 또한 마약 매매와 장기 매매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마피아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123항).

이러한 관점에서 이 회칙은 현대 세계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 앞서서 “인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온전한 생태학에 대한 모든 접근은 노동의 가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4항), “단기간에 걸쳐 더 큰 금전적 이익

을 얻고자 인적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 행위” (128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제는 명확히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련된 과학 발전의 제약에 관한 것입니다 (132-136항). 이는 “복합적인 환경 문제” (135항)입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와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134항) 이 문제는 “경작지를 소수의 소유주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134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특히 군소 생산자들과 농촌의 일꾼들, 생물다양성, 생태계망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범위하고 책임 있는 과학적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학제적 연구에서” (135항)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4장 온전한 생태학

이 회칙이 제안하는 것의 핵심은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온전한 생태학입니다. 이 생태학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유한 자리와 우리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15항) 사실 “자연은 우리 자신과 분리되거나 우리가 사는 단순한 배경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139항) 이는 모든 분야에서 사실입니다. 경제와 정치, 여러 문화, 특히 가장 위협을 받는 문화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온전한 관점은 제도의 생태학도 이용합니다. “모든 것이 관련되는 것이라면 사회 제도의 건전성도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142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많은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 당신의 생각을 확인하십니다. “환경 문제의 분석은 인간, 가정, 직업 관련 도시 상황의 분석, 인간들 자신과의 관계 분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141항), “우리는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별개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139항)

“인간 생태학은 공동선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지만” (156항)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불의가 판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기고 소모품처럼 여겨

지게 되는” (158항)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동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158항)에 기초한 연대를 이루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러한 진리를 선포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세상을 물려주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베네딕도 16세께서는 이미 이를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더욱 공평한 세대 간 연대 의식에 덧붙여, 세대 안의 연대 의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도덕적 요구도 절실합니다.” (162항)

또한 온전한 생태학은 일상생활과도 관련됩니다. 이 회칙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간은 뛰어난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제약에 반응하는 개인과 집단은 주변 환경의 적대적 영향을 완화하고 무질서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놀라운 창의력과 관용을 보여줍니다.” (148항) 그렇지만 공적 공간, 주택, 교통을 포함한 인간 삶의 질의 온전한 개선은 여전히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습니다(150-154항).

또한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이며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집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155항)

제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

이 장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참여하는 대화와 행동을 위한” (15항) 제안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현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기 파괴의 소용돌이에서 탈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 (163항)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실천적인 제안이 이념적으로 피상적이거나 환원주의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며 이 단어는 이 장의 모든 절에 나와 있습니다.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 교회는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이익이나 이념이 공동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솔직하고 열린 토론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188항)

이러한 근거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환경에 관한 세계 정상 회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결여 되어 참된 의미가 있는 효과적인 세계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166항)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단계에서 긴급하고 필수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기억될 뿐인데도 권력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57항) 그런데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시작하여 여러 교황님들께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은 세계 통치의 형태와 수단입니다(175항). “이른바 ‘인류 공공재’ 전체를 다룰 통치 체도에 대한 합의” (174항)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 보호가 비용과 수익에 관한 금전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만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시장의 힘으로 바르게 보호되거나 증진될 수 없는 재화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0항).

이 제5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솔직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의 수립을 주장하십니다. 이는 어떤 정책과 사업 계획이 “참다운 온전한 발전” 을 가져 올 수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185항). 특히 “새로운 벤처 사업과 계획” 에 관한 올바른 환경 영향 연구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포함한 투명한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특혜의 대가로 특정 계획의 실제적인 환경 영향을 은폐하는 부패는 대부분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하고 충분한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 허점투성이의 합의만을 낳을 뿐입니다.” (182항)

교황님께서는 정치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오늘날 매우 만연한 “ ‘효율’ 과 ‘즉각’ 의 사고방식” (181항)을 버릴 것을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기를 낸다면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들의 존엄을 증언하고 헌신적인 책임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181항)

제6장 생태 교육과 영성

교황님께서는 이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가 생태적 회개의 마음을 지니도록 초대하십니다. 문화적 위기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리고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기 부여와 교육 과정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15항). 모든 교육 분야가 참여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학교, 가정, 매체, 교리교육과 그 밖의 분야에서” (213항)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발점은 “새로운 생활양식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203-208항). 이는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는 이들에게 건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6항)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기업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생산 방식을 성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206항)

환경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환경 교육은 행동과 일상 습관, 곧 물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나아가 “필요 없는 전등의 소등” (211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온전한 생태계는 폭력과 착취와 이기주의의 논리를 타파하는 평범한 일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30항). 모든 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관상적 관점에서 시작될 때 쉬워질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맺어주시는 유대를 생각하며 세상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관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생태적 회개는 우리가 더 큰 창의력과 열정을 발휘하도록 해줍니다.” (220항)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발휘되는 냉철함은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223항) 다시 말해서 “행복은 우리를 해칠 뿐인 일부 욕구를 억제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줄 수 있는 많은 다른 가능성들에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23항).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이웃과 세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으며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229항)

성인들은 이러한 여정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회칙에서 여러 차례 인용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온전한 생태학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훌륭한 모범입니다” (10항).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 보호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와 사회적 헌신과 내적 평화 사이의 불가분의 유대”를 잘 보여줍니다(10항). 이 회칙은 또한 베네딕토 성인, 리지외의 데레사 성녀, 샤를 드 푸코 복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칙에서 힘을 얻어 정기적인 양심 성찰에 새로운 차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심 성찰은 개인의 삶을 주님과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끌도록 언제나 권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과 어떤 친교를 이루며 살았는지에 관한 것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자연과 어떻게 친교를 이루고 살았는지를 깊이 성찰하여야 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에 직결된 질문과 답변

1.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이 문서가 담고 있는 것으로 교회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이 회칙은 회개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찬미받으소서」는 가톨릭의 전통에 온전히 들어맞으면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신자들에게 더 이상 ‘선택’ 이 아님을 새롭게 강조합니다. 환경 보호는 이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 가르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 교황님께서서는 왜 인구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이 회칙은 일부 지역에서 과밀한 인구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낭비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버리는 문화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소비 경향이 문제입니다.

3. 회칙이 기술과 금융을 적대시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단순 논리적이고 더 나아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화되는 것에 맞서서, 기술과 금융 시장이 인간 존엄을 증진하며 인류에 봉사한다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솔직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참다운 기술 발전이란 무엇입니까? 기술 발전이 어느 면에서 인간 존엄을 증진시키거나 손상시킵니까? 금융 시장이 부의 확산을 돕습니까? 금융 시장이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해냅니까?

4. 회칙은 화석 연료 사용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렴한 에너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

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부유한 나라들과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나라들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기를 바라십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모든 이를 위한 대체 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곧 부유한 나라들은 자기 이익을 나누어 가난한 나라들이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교황님께서 대규모의 세계적인 농업 계획을 지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29, 164항 참조). 그것은 교황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황님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주교님도 기술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뿐입니다. 곧 우리가 곡물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은 다른 사람들, 양심적인 평신도들의 몫입니다.

6. 회칙은 많은 부분을 경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9항에서는 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의견이 교황님께서 제시하실 만한 것입니까?

교황님께서서는 경제 이론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인간 존엄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에서 나오는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7. 교황님께서서는 왜 이렇게 시장을 반대하십니까?(189, 190항 참조) 이는 단순히 교황님께서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지니신 편견은 아닙니까?

유럽의 청년 실업률과 아프리카를 떠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이는 라틴 아메리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 경제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바로 그러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가 많은 부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빈곤이 극심하고 그에 편승한 무관심도 팽배해 있습니다.

8. 교황님께서서는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22항 참조). 모든 논의에 앞서, 영적 사명을 지닌 분에게 그것은 매우 세속적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참으로 인간에 관련된 것은 그 무엇이든 교회의 관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에 대하여 더 큰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기후 변화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적응을 가장 못하는 이들에게 이미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9. 교황님의 회칙 작성에 턱스 추기경님 외에 누가 도움을 주었습니까? 많은 주교회의가 인용되었는데 과학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황님의 회칙 작성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교황님 명의로 발표되어 마침내 교황님의 회칙이 된 것입니다. 과학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모두 접하는 분야인 과학계에서 찾은 것입니다. 과학계는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다루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토론의 대상이 되는 점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그저 그 토론이 솔직한 것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10. 자연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연법은 언제나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 교황님께서서는 이 회칙에서 다루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신학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독일 연방의회에서 환경을 언급하시면서 자연법을 다루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회칙에서 신학적 변화가 아니라 폭넓은 청중을 위한 새로운 언어를 찾으려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연법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지니지 않은 사람도 미래 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돌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24항은 기술과 금융이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척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기술과 금융이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해내었으며,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회칙은 우리의 퇴보를 바라는 것입니까?

기술과 금융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일부 사람들에게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이 회칙은 전혀 퇴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칙은 적절한 직업, 주거,

보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며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칙은 지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12. 볼리비아 주교들은 환경 문제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주장합니다(48항 참조). 이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하면 가난한 이들이 더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왜 사람들이 볼리비아 주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까?

볼리비아 주교들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양식을 길러낼 수 없어서 굶주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항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기에, 목숨을 걸고 북아프리카를 떠나 지중해를 건너거나 미국을 향하여 리오그란테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3.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황님께서 다른 행성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닌지요? 52항에 쓰신 것처럼 교황님께서서는 진심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빈곤한 나라들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연대가 인기 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장 먼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하지 못하면, 특정 지역들은 더욱 부유해지겠지만 우리가 세계 공동체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이 도와주면 가난한 나라들이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문제도 해당됩니다.

14. 55항은 에어컨 사용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그러한 비난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그 정도로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낭비하듯이, 많은 나라에서 에어컨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교황님께서 좀 더 건전한 생활방식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각자가 검소하게 살기 위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권유입니다.

15. 이 회칙은 부의 재분배를 촉구합니까? 193항은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칙은 민족들의 연대와 국가들의 연대를 촉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부의 분배 방식에 대한 묘책을 지니신 것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지닌 이들이 생각과 마

음을 열어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분명히 요청하십니다.

16. 매매와 무역이 끝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또한 사람들에게 계속 일거리를 마련해 줍니다. 회칙이 묘사하는 것처럼 소비주의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124항 참조)

우리는 모두 소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며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무절제한 욕망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실 전혀 필요 없는 욕구를 낳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대한 절제력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소비주의에도 이와 유사한 중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는 집착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

존경하는 형제님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피터 코도 아피아 틱슨 추기경님과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의장 쿠르트 코흐 추기경님,

저는 존경하는 동방 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과 피조물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회칙 「찬미받으소서」 7-9항 참조),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저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소개할 때 참여하셨던 그 대리인 페르가몬 관구장 요한 대주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형제님들께 정교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행해 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가톨릭 교회에서도 9월 1일로 제정하고 올해부터 이날을 거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풍부한 영적 유산에서 피조물의 보호에 대하여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찬미받으소서」, 216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의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이처럼,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의 삶에 핵심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해마다 거행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은 신자 개인과 공동체에 피조물의 보호자로 부름 받은 이 소명에 직접 새롭게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이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를 맡기신 당신의 놀라운 위업에 감사드리며, 피조물 보호를 위하

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할 것입니다. 정교회와 같은 날에 지내는 이 기도의 날은 우리가 정교회 형제들과 점점 일치되어 감을 목격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주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공동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더욱 믿음직스럽고 효과적인 응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기도의 날이 어떻게 해서든 다른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세계교회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함께 공동으로 거행되기를 바랍니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이신 텍슨 추기경님, 추기경님께서 각국 주교회의의 정의평화 위원회와 환경 문제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단체들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에 관하여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적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이날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하느님의 온 백성이 마땅히 참여하여 이 기도의 날을 거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정의평화평의회는 주교회의들과 협력하여 이날의 뜻을 밝혀 주고 추진하는 적절한 계획들을 세우는 임무를 맡아서, 해마다 이 기도의 날이 기도, 묵상, 회개와 알맞은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강력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의장이신 코흐 추기경님, 추기경님께서 정교회 총대주교구와 다른 교회 일치 운동 단체들과 필요한 접촉을 하시어, 이 기도의 날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함께 걸어 나가는 그 길의 깃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가 세우는 비슷한 계획들과 협력 조정을 모색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 가장 훌륭하게 출발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최대한 폭넓은 협력을 기대하며,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구를 간청합니다. 성인이 노래한 피조물의 찬가는 선의를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피조물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다짐과 함께,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저의 사랑하는 추기경님들과 여러분의 직무를 돕는 모든 분께 사도로서 저의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15년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프란치스코

<원문: Letter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 [1st September]. 2015.8.6., 독일어 판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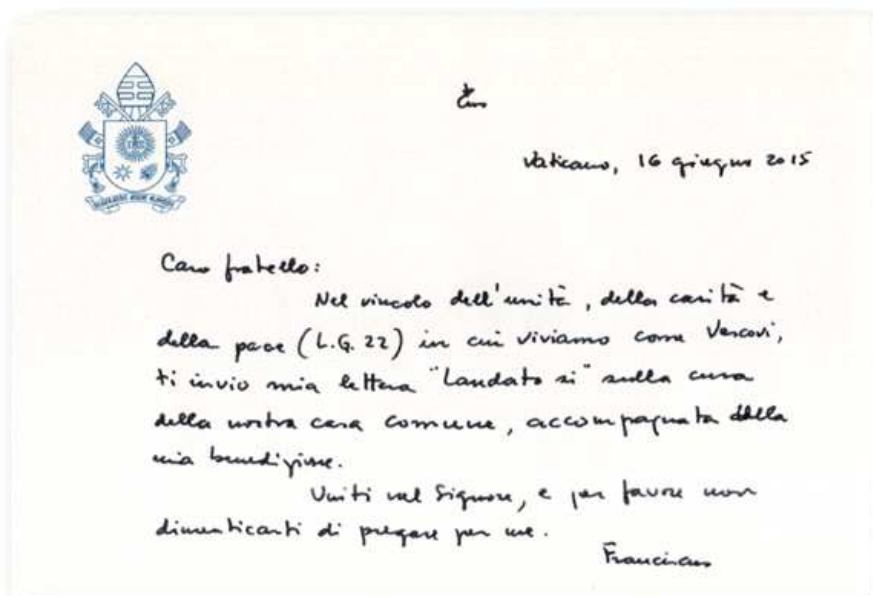
영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letters/2015/documents/papa-francesco_20150806_lettera-giornata-cura-creato.html

독일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de/letters/2015/documents/papa-francesco_20150806_lettera-giornata-cura-creato.html

회칙 교황 친필 메모내용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

우리가 주교로서 실천하고 있는 “일치와 사랑과 평화의 유대” (교회 헌장 22항)로 저는 ‘더불어 사는 집을 돌보는 데에 관한’ 저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저의 진심어린 교황 강복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빚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온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주님께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시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분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시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의 놀라운 친교를 이루는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저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적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맞갖은 자리를 보여 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이들을 깨우쳐 주시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메모지



메모지



메모지

